

♡1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

아르투르 쇼펜하우어(1788~1860)는 물자체와 표상을 나눈 칸트의 인식론을 받아들이면서 물 자체는 ‘의지’라고 주장한다. 세상은 의지가 펼쳐내는 표상이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이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의 본질은 ‘의지’라고 여겼다. “내 신체는 내 의지의 객관성”이다. 신체는 의지를 표현한다. “내 신체와 내 의지는 동일”하다. 인간은 신체가 중심이고,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간파한다. 인간은 무한한 세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무한한 세계에서 전적으로 보잘 것 없고 무로 축소되는 모든 개체는 그럼에도 자신을 세계의 중심점으로 삼고, 자신의 생존과 안녕함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고려하며, 그러니까 자연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것을 이것에 희생할 용의가 있으며,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그 자신을 단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도 없애 버릴 용의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성향이 자연 속의 모든 사물에 본질적인 이기심이다.

우린 내 안의 의지의 따라 살아간다. “모든 다양한 의지 행위의 근본 주체는 건강한 신체라는 현존과 분리시킬 수 없는 욕구의 충족인데, 이미 신체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 욕구는 개체의 유지와 종족 번식이라는 것에 환원된다.” 우리는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곧장 번식에 힘쓴다. 생물에게 생존과 번식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건 없다.

성 욕동이 단호하고 가장 강력한 삶의 긍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연인이나 동물의 경우 삶의 최종 목적이고 최고 목표라는 사실로 확인된다. 자연인의 제1의 노력은 자기 보존이고, 이 자기보존이 달성되자마자 그는 종의 보존에 힘쓸 뿐이며, 즉 단순히 자연적 존재로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자연의 내적 본질이 삶의 의지 자체이듯이, 자연도 있는 힘을 다해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내몰아 번식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때때로 감추지만 동물보다 소박한 식물은 적나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노출시킨다. “이 식물은 첫눈에 전체 본질을 완전히 순진하게 드러내며, 모든 동물의 경우에는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생식기를 제일 꼭대기에 내보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늘 충족되는 건 아니다. 의지에 따라 행동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의지는 잘 만족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체에 작용을 미친다. “그 작용은 의지에 반할 때는 그 자체로 고통이라 불리고, 의지에 따를 때는 유쾌감이자 쾌감이라 불린다.” 우린 고통을 피하고 욕망과 충족을 위해 살아간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며.

소망에서 충족으로, 이 충족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끊임없이 옮겨 가는 유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굴어지게 하는 끔찍한 원태이자 특정한 대상이 없는 김빠진 동경으로서, 습막히게 하는 우울로서 나타나는 정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 무언가 소망하고 노력할 것이 남아 있을 때가 그래도 제일 행복한 법이다. 이때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행복이라 불리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고통이라 불린다.

♡2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우린 불행하다면 단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대체로 고뇌가 삶에 본질적이라는 인식과, 그 때문에 그 고뇌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고뇌의 샘을 각자 자기 가슴에 지니고 있다는, 쓰디쓴 약에 비유할 수 있는 인식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온갖 쾌감과 만족을 얻어도 삶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 부족, 즉 고통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미 근본적으로 또 그의 본질을 통해 이미 고통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왜 걱정하고 고통스러운가? 욕망, 바로 결핍 때문이다.

인간은 철두철미 구체적인 의욕이자 욕구이며,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인간은 이 욕망을 품고 자신의 결핍과 궁핍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맡기고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에 따라 날마다 새로이 생기는 무거운 요구에 시달리며 자신의 현존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로 일평생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 다음으로 이 현존의 유지와 직접 결부되는 제2의 요구는 종족 번식의 요구이다.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문제다. 더 이상 욕망할 게 없으면 “무서운 공허와 무료함에 빠진다.” 그래서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지루함이 인생을 이루는 궁극의 요소라고 잘라 말한다. 어쨌든 고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뇌를 추방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고뇌의 형태를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뇌의 행태는 원래 부족과 곤궁, 삶의 유지를 위한 근심이다. 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형태를 지닌 고통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고통은 연령이나 사정에 따라 교대로 수많은 다른 모습을 취하며 성 욕동, 열정적인 사랑, 질투, 부러움, 증오, 불안, 명예욕, 금전욕, 질병 등으로 나타난다. 고통이 결국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없게 되면 싫증과 무료함이라는 슬픈 회색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 마침내 이 싫증과 무료함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 이전의 여러 고통들 중의 하나에 다시 빠져, 고통스런 춤을 처음부터 다시 추게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에 이리저리 내던져져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청춘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곤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외부에서 보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보잘것없게 흘러가는지, 안에서 갖는 느낌으로도 얼마나 막연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지 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들의 삶은 빛바랜 동경이자 괴로움이고, 보잘것없는 일련의 생각을 품고 인생의 사계를 거치며 죽음을 향해 끔찍처럼 허우적거리며 걸어간다.” 그런데 인생의 형식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것이다.” 잘 먹고 운동하더라도 죽음이 저지되고 미뤄지고 있을 뿐이다.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죽음이 승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죽음은 잠시 동안만 자신의 전리품을 가지고 놀다가 집어삼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이 큰 관심을 갖고 대단히 주도면밀하게, 되도록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계속한다. 이는 마치 비눗방울이 언젠가는 터질 것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되도록 오랫동안 커다랗게 부는 것과 마찬가지다.

♡3 행복해지는 방법

우리는 술한 오류에 갇혀 살아간다. 잘못된 표상들을 믿고 있는 것이다. “간혹 우리를 참을 수 없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추상적인 사고다.” 직관의 표상은 잠깐 사실 관계를 왜곡시킨다면 추상의 표상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를 질식시키는 오류에 맞서 싸워왔고 그렇게 얻어낸 것이 철학이다.

우리는 나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내가 한 것들은 이미 과거지만 그 행위를 통해 “우리의 가장 내적인 자기, 즉 우리 의지의 핵심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노력하고 투쟁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상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도록 해야 한다.” 돌이켜 보아 나 스스로 떳떳한 행위를 하며 살라는 얘기다.

하지만 늘 당당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후회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적합하고 성취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일부 사람들의 처지나 상황을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그의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만 맞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맞는 분위기에 있어야만 행복”하다면서 자기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라고 귀뜸한다. “남의 특성과 특색을 모방하는 것은 남의 웃을 입을 것보다 훨씬 치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완전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힘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가짜 동전으로 도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속임수로는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의 현상에 불과하므로, 성찰에서 출발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기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의욕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의지 자체에서 해방을 꿈꿨다. 의지의 해방을 자연이 이뤄준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과 만나면 짧게나마 “의지의 노역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의지의 조종에서 벗어나 잠깐이나마 자유를 맛볼 수 있다. “이처럼 인식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잠과 꿈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 떠나는 것처럼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행복이나 불행은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개체가 아니며, 개체는 잊히고 단지 순수한 인식 주관일 뿐이다.” 자신의 욕망에서 해방되어 세계를 그 자체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높이 평가한다. 예술은 내 안의 어쩔 수 없는 의지, 충동과 욕망들을 다루면서도 끝내 의지를 완전하게 인식해서 진정되고 포기되는 걸 표현한다고 쇼펜하우어는 주장한다.

예술은 의지의 적절한 객관성인 이념 속에서 모든 단계를 거치며 의지를 추구하여, 의지가 원인에 의해 움직이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예술은 동기에 의해 다양하게 움직여 그 본질이 펼쳐지는 단계에 이른 뒤, 이제 의지가 자체의 본질을 가장 완전하게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하나의 커다란 진정체에 의해 의지가 거리낌 없이 자기폐기를 하는 것을 그림으로써 끝나게 된다.

♡4 의지에서 해방된 인간

쇼펜하우어는 의지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우리는 격심한 의지의 충동에서 구원받아, 즉 무거운 지상의 대기에서 떠오르는 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복된 순간임을 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이끌거리는 신체의 쇠약을 바라며 금식과 절제를 권한다. 자신의 본질을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덕에서 금욕으로의 이행”을 한다.

본질적으로 다름 아닌 의지의 현상으로서 그는 무언가를 의욕하는 것을 그치고, 그의 의지가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든 사물에 최대한 무관심하려 애쓴다. 건강하고 튼튼한 그의 신체는 생식기를 통해 성 욕동을 표현하지만, 그는 의지를 부정하고 신체의 거짓을 책망한다. 즉, 그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성욕의 충족을 원하지 않는다. 금욕 또는 삶에의 의지의 부정에서 제1보는 자발적이고 완전한 동정童貞이다.

의지가 꺾이고 나면 자유로워진다. “그는 이 세상에 우리를 묶어두고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하면서, 욕망, 두려움, 질투, 분노로서 이리저리 휩쓸리게 하는 의욕의 온갖 수천 가지 실마리를 끊어 버렸기 때문이다.” 위대한 인간은 세계정복자가 아니라 세계극복자다.

그러므로 실제로 세계극복자란 이런 인식을 지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실현하고 모든 것 속에서 활동하며 노력하는 삶에의 의지를 포기하고 부정하는 사람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품행에 다름 아니다. 그러한 사람의 자유는 여기서 비로소 그에게서만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이제부터 그의 행위는 보통 사람의 그것과는 정반대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덧없는 환영임을 깨닫고 욕망의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삶에는 지속적인 고뇌가 본질적임을 인식하는 데는 이르지 않고,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삶에서 완전히 행복함을 느끼며 또 조용히 숙고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생애가 무한히 지속되기를 원하거나 또는 언제나 새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의 의욕이 너무 커서 삶을 향유하는 대신 삶에 따라다니는 모든 고통과 고뇌를 자진하여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이 되면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맞이하고 이기심에서 해방되어 세계를 인식하면서 마음이 넓어진다고 쇼펜하우어는 얘기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으로써 그 자신에 대한 불안스런 걱정이 근본적 타격을 받아 제한된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해주는 조용하고 확신에 찬 명량성이 생기고, 선행이 그러한 기분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주면서 선행을 할 때마다 명량성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의지를 꺾은 다음엔 세계의 본질을 관조하라고 말한다. 관조하는 삶은 고독할 수 있는데, “지적 가치를 재는 좋은 척도는 대체로 우리가 외로움을 어느 정도 견디는지 또는 좋아하는지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외로움과 지성을 연관 짓는다. 고독을 얘기하면서도 연민을 설파한다. “모든 참되고 순수한 사랑은 연민이고, 연민이 아닌 모든 사랑은 사욕이다.” 모두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다른 존재에게 연민을 갖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